

북유럽을 다녀와서(下)

이 승 권 / 우리 협회 전문위원
건설안전기술사

빙하와 피요르드로 有名한 노르웨이는 Scandinavia 반도 서쪽에 위치하며 Sweden과 Finland, 북극에 접해 있다. 西紀前 1800年頃に 게르만 민족이 정착하면서 역사가 시작되었지만 서기 400년대의 부족국가시대를 거쳐 바이킹시대를 경유, 900년경에야 나라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1380년에 Denmark, 1814년 Sweden 지배, 1940년에 독일 침범을 거쳐 1905년 독립한 나라로 국토 32만km², 인구 424만명의 길고 (1,752km) 협소한 지형이지만 국내에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사회보장제도가 철저하여 축복받은 나라 중의 하나이다.

수도 오슬로의 심벌은 역시 시청사 Radhuset이다. 市 창설 900년을 기념해서 지었다는 시청사는 붉은 벽돌 3층 건물로 양단에 높은 시계탑을 세웠는데 단조로우면서도 웅장한 맛이 있다. 현관 안벽에 설치한 벽화는 크기가 24m × 12.6m로 유럽에서 가장 큰 유화라고 한다. 16개의 목조물과 많은 그림들은 역사를 說明하는 것으로서 외국인들도 한눈에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특징이다. 조각전시물로 유명한 프롱네르 公園은 조각가의 이름을 따서 Vigeland 조각공원이라고 부른다. 정문에서 후문까지 850m 길이에 650개의 인물조각을 출생에서 노후까지의 Gustav Vigeland 자기 자신

의 일생을 조각을 통해 표현한 희귀한 조각물들이 세워져 있고 마지막 작은 언덕 위에는 원형기둥 모양의 한개의 화강암(17m 260톤)에 남녀노소 121명의 조각상이 뒤엉켜 있는 모습은 불가사의를 비유할 만하다.

Holmen은 산이름, Kollen은 골짜기라는 뜻을 가진 홀멘콜렌 스키점프장은 1952년과 1994년에 동계 Olympic을 치렀던 곳. 120m Runway에 140m Flying, 世界的으로 有名한 Ski Jump場으로서 해발 412m에 위치한다. 1922~1923년에 國王이 선수의 자격으로 대회에 참가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國王이 개를 데리고 크로스컨트리를 즐기는 동상이 점프대 아래에 세워져 있으며, 그 위에는 스키박물관이 2층 목조건물로 아담하게 위치하고 있다. 여기에는 2,500년 전에 사용된 스키부품부터 현재에



Norway의 한 주택가

이르기까지 스키에 관한 모든 것들이 진열되어 있다.

Oslo항을 지켜보는 아케르후스城은 1300년 호콘 5세에 의해 바위 위에 自然地形을 利用하여 建築되었는데 오슬로에서 가장 오래된(最古) 건물이다.

또한 카를요한 거리에 위엄있게 서있는 삐로티 양식의 건물은 1811년에 지은 Oslo 대학 강당으로 매년 12월 10일 노벨평화상 시상식이 거행된다.

입선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 國立劇場은 분수가 있는 공원을 사이에 두고 국회의사당 앞에 서있다. 유럽의 고전미가 물씬 풍기는 외관 설계는 대중을 끌어들이는 마력을 풍기는 듯하다.

오랜 역사와 조형미를 자랑하는 바이킹 박물관은 1,000년 역사를 지닌 오세베르베를 보관, 귀중한 유물과 함께 전시한 곳으로 女王과 귀족들이 사용했던 것, 여왕이 죽은 후 묘지로써 시체와 함께 매장되었다가 1904년에 발굴되어 빛을 보게 되었는데 건축 설계나 특이한 마감 등이 매우 이채롭다.

수도 Oslo에서 두번째 도시 Bergen까지 가는 데는 꼬박 1박2일이 걸린다. 平野, 湖水, 山林 지대를 지나 2,469m의 Scandinavia 산맥을 넘어간다. 험준한 산을 따라 만든 도로나 철로는 주로 터널이다. 산악공사의 악조건때문에 도로의 폭은 좁은 2차선과 부분 1차선이며 터널



Oslo의 조각공원 Vigeland

내부의 대부분은 岩石 그대로 마감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터널의 길이는 보통 2~4km인데, 더 놀라운 것은 레르달에서 올랜드까지 핀란드 산을 관통시키는 大役事로서 42km를 한개의 터널로 TBM공법을 이용하여 1998년 준공 목표로 진행중인데 이것이 完成되면 세계에서 가장 긴 명물로 등장하게 된다.

오슬로에서 레르달, 골, 올랜드를 거쳐서 Flam까지 오는 데 36개의 터널을 지났다. 산악 철도를 타고 갈 때는 아름다운 전경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셔터를 누르려면 그 사이에 또 터널이 가로막기 일쑤니 가히 터널의 수를 짐작하게 한다. 노퍽이 좁은 터널내 1차도로에서는 감응식電子자동신호체계에 의해 신호등이 작동하여 진행차량을 번갈아 유도하며, 터널 속에 산위의 표면수 낙하를 이용한 발전소가 암반속에 설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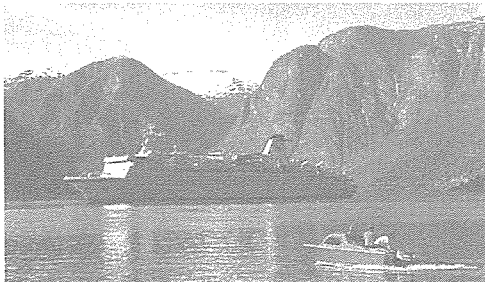
Aurland 부근의 고산에는 萬年雪이 그림처럼 펼쳐지고 산정에서 녹아내리는 물이 Gudvangen 쌍폭을 비롯한 많은 걸작품의 폭포를 제작하는 장관을 연출한다. 해발 2천 미터 이상은 나무 하나 없는 岩石山이며 지각변동에 의해 암층의 부분침하가 진행되는 곳도 여러군데 목격되었다.

이렇듯 험준한 산속을 아슬아슬하게 꼭에 운전하는 운전기사의 솜씨도 대단하다. 긴 겨울이면 눈과 얼음으로 변하는 도로의 악조건과 교통사고의 위험성때문에 한겨울 기간 3개월은 산악 지방의 운행이 아예 금지된다고 한다. 그래서 스웨덴을 비롯한 이들 나라에서는 운전면허증 따기가 무척 어렵다. 교통안전은 中學校 과정부터 정규과목으로 되어 있고 18세부터 차를 몰수 있는데, 실기시험은 시내운전, 고속도로 운전은 물론 꼬불꼬불한 산길, 시골길, 빙판운전까지 병행한다. 처음시험은 7개의 빙판 코스를

통과하는 것으로부터 까다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필기시험까지 못하고 거의 탈락하며, 부인들의 경우 최소한 80회 내지 150회 가량 연습해야 하고, 학원 교육비도 보통 300~5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래도 되면 다행이고 보통은 1년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정말 철저한 그들의 면허 취득 의식수준을 보면서 살인면허 제조라고 일컫는 우리네 면허제도의 재고점은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했다.

방콕에서 관광 코스중 유람선을 타고 수상시장을 거쳐 새벽사원까지 가면서 주변 사원과 생활상을 보는 것처럼, 이곳의 피오르드(Fjord)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 병풍처럼 양쪽에 드리워진 산속을 강(실체는 海水)을 따라가며 대자연속을 감상하는 것이다.

피오르드의 歷史는 氷河로서 100만년 전의 유럽은 1,000m가 넘는 빙하로 덮혀 있었다고 한다. 이 빙하가 차츰 두께가 늘어나면서 그 무게에 견디지 못하고 계곡으로 흘러내려 가면서 V字形으로 하천 바닥을 파내려가 계곡을 칼로 절단한 것처럼 깎아 버렸다. 그후 빙하의 후퇴와 함께 파내려간 부분에 바닷물이 들어와 현재의 江처럼 피오르드가 형성되었는데 송내 피오르드는 200km에 깊이 1,300m로 세계에서 가장 길고 깊은 곳으로 유명하며, Bergen까지 피오르드가 나무가지처럼 무수하게 뻗어나가 하나하나가 모두 자연 예술의 극치를 이루고 있



Norway의 Sogne Fjords

다.

어린이들의 아버지 “안데르센”의 출생지이며, 인어공주 등 동화의 나라라고 불리는 Denmark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발트해를 중심으로, Jutland 반도와 Zealand 중 약 50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14C 末에는 Scandinavia 王國의 번영을 누리다가 나폴레옹의 유럽 정복시대가 끝난 뒤 1849년에 입헌군주국으로 탈바꿈한 뒤, 세계 최고 수준의 낙농목축국이 되었으며 社會福祉 보장제도가 완비되고 작은 소득격차에다 生活水準이 매우 높은 나라이다. 인구 516만명에 43,000km²의 작은 나라이지만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산이 없고 68%가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는 유럽의 곡창이다. 溫帶 海洋性 기후로 연평균 氣溫은 8℃로 비교적 따뜻하나 비가 많으며 時差는 우리나라보다 8時間 늦다.

먼저 찾아간 곳은 교회 Vor Frelsers Kirke 이다. 40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1684년에 완공한 이 교회는 보르팔세스라는 建築家가 직접 設計하고 施工했으니까 平生을 이 作品에 참여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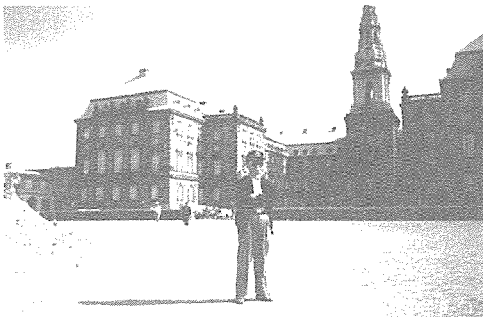
教會內部는 天主教式을 따랐으며 禮는 基督教式으로 進行하는데 규모는 유럽의 교회가 다 그렇듯이 내외부 모두가 웅장하고 섬세함은 우리의 성당이나 교회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렇듯 空間藝術의 훌륭한 作品을 남겼음에도 不拘하고 그는 자라는 커녕 준공 후 계단설계가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종탑에서 뛰어내려 自殺로 자신의 잘못을 청산하였다니 不實工事만 일삼는 우리들에게 정말 큰 教訓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나라의 建築조례는 엄격해서 最新技術에 의한 高層建物の 最大높이가 시청의 탑 높이 106m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함으로써 정원속의 아담한 都市로 정착할 수 있었고, 古建물의 철거는

오히려 시의 허가가 나지 않아 외관의 옛모습을 그대로 두고 内部만 고침으로써 그들의 역사성을 고집하여 왔으며, 부득이한 신축공사의 경우에는 1년여간의 긴 검토를 거쳐서 주변건물의 높이와 색채와 모양을 의무화하는 등 철저한 정책을 뒷받침으로 해서 都市는 그 독특한 重量感을 계속 지켜온 것이다. 우리 建交部나 市道에서 시행하는 건축심의회도 정말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책임있고 사명감에 불타는 그런 정책이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바란다.

북유럽 르네상스의 建築美를 아낌없이 보여주는 코펜하겐은 볼거리도 많지만 반성하고 배울 점도 수없이 많다. 토발 요한센이 設計한 높은 탑을 강조한 크리스찬 보스 국회의사당, 시민 누구나 한달씩 책을 빌려볼 수 있는 꽃 香氣 그윽한 王立圖書館. 마르틴루터가 設計한 르네상스 양식의 위엄에 찬 붉은 벽돌의 시청사, 1615년 크리스티안 4세와 몽크부인의 사랑의 보금자리로 지었다는 로젠보그 궁전, 4천여개의 pipe를 利用하여 오르간 모양으로 만든 독특한 그룬트비 教會, 덴마크 최대의 소장품을 자랑하는 국립박물관, 1560년부터 60년간에 걸쳐 숲과 호수의 특징을 강조하여 건축한 프레데릭스보그 城, 셰익스피어의 비극인 햄릿의 무대로써 유명한 1585년에 건축된 크론보그 城, 왕을 위하여 여름 별장으로 건축한 역대왕의 화려했던 역사

를 유물과 함께 진열한 로순보 城, 1134년부터 90년간에 걸쳐 완성된 로마네스크양식과 고딕양식을 병용한 Ribe 대성당 등은 그들의 인고의 투지와 장인정신, 그리고 時空을 초월한 선조의 숭고한 精神의 결집이 오늘의 유럽 建築文化 遺産을 남겨 놓고 그들의 철저한 관리와 보존의식이 지금의 文化 유럽을 면면히 계승하여 오고 있는 것이다.

8월 4일 암스텔담을 거쳐 귀국하는 SAS 점보機 안에서 서른네번째 나라 Denmark 탐방을 마치면서 잘사는 나라, 문화유산이 풍부하고 福祉施設이 완벽한 복지의 나라, 준법정신이 몸에 밴 神士들의 왕국,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祝福받은 나라라고 인식되어온 고정관념을 깨고 똑같은 지구상에 共存하는 우리들로서,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정말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생각을 바꾸면 변화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이빨을 갈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우리는 독특한 강다구를 가진 國民이다. '97년이면 技術分野 UR 오픈으로 因해 기라성같은 外國의 建設技術者들이 대거 몰려 올 것이다. 우리 영역을 침식당하면 우리 建設人들은 자칫 설 땅을 잃게 될 수도 있다. 不實, 不正, 形式, 他性을 버리고 과감하게 世界에 도전하자. 世界를 向해 뛰자.



Copenhagen의 로젠보그 궁전 앞에서의 필자



Copenhagen City hall